

최근 UAE의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동향

1. 자금조달 재개 배경

□ 투자자의 신뢰 회복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복귀

- 2009년 11월 말 두바이 월드(Dubai World)의 채무상환유예 선언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두바이는 2011년에 들어서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6월 12일에 두바이 정부가 50억 달러의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한 직후인 6월 15일에 5억 달러의 채권발행에 성공하였음.
- 국제금융시장에서 두바이의 경제 펀드멘털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재개를 타진하고 있음.
- 2011년 6월 말 UAE 국영 부동산개발 업체인 나킬(Nakheel)이 105억 달러 규모의 채무에 대해 채권단과 리스케줄링에 합의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UAE 은행들도 투자가들로부터의 신뢰회복 및 유리한 자금조달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는 한편, 사무라이 채권, 이슬람 채권 등 조달선 및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2. 자금조달 현황

□ 두바이 정부

- 2011년 6월 두바이 정부의 자금조달은 2009년 11월 두바이 사태 이후 2010년 10월 런던 금융시장에서 12억 5,000만 달러를 조달한 이래 두 번째이자 8개월 만임.

- 채권발행 조건은 만기 10년(5년후 풋 옵션 조건 포함), 금리는 5.591%이고, 5년후 풋 옵션조건 금리는 기준금리(mid-swaps)에 375~385bp를 더한 수준임.
- 두바이는 연초 이후 중동 지역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피난처(safe-haven status), 정치적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근 몇 달간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음.
- 두바이 정부는 건설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향후 50억 달러 규모의 유로화 표시 중기채권(Euro Medium Term Note)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바 이번 채권발행은 이를 위한 국제금융시장에의 복귀를 시사함.

□ 두바이 공기업

○ 두바이 투자공사(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 두바이 투자공사는 두바이 월드, 두바이 홀딩스(Dubai Holdings)와 함께 두바이 정부 소유의 3대 공기업으로 2011년 5월에 채권 은행단과 28억 달러의 대출금을 5년 만기 조건으로 차환(refinancing)하는데 합의하면서 채무재조정에 성공하였음.

○ 두바이 포트 월드(Dubai Port World)

- 두바이 월드의 자회사로서 2011년 6월 1일에 광범위한 투자자본 유치 및 기업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 두바이 포트 월드는 물동량 처리기준 세계 4위의 항만운영 회사로 2007년 11월에 기업공개를 통해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인 49.6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음.
- 기업의 펀드메탈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점을 불식시키고 투자자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 2010년부터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해 왔음.

○ 에미레이트 항공회사

- 아랍 지역의 최대 항공사이자 두바이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2011년 6월 1일에 채권발행을 통해 10억 달러를 조달하였음. 채권발행 조건은 만기 5년, 금리는 기준금리(mid-swaps)에 330bp를 더한 수준임.

- 당초 5억 달러 규모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의 수요가 약 50억 달러에 달하여 조달규모를 증액하였음.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개선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반영했다는 평가임.

○ Du (공식 기업명은 Emirates Intergrated Telecommunications)

- UAE의 2대 통신회사로서 2011년 7월 중에 만기도래하는 채무 817백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 220백만 달러를 조달(club loan facility loan)하였는데, 조달조건은 만기 3년, 금리는 Libor+1.45% 수준임.
- 나머지 채무 잔액은 사내 유보금 29억 디람(792백만 달러)으로 상환할 계획임.

□ UAE 은행

○ UAE내 자산규모 2위의 국영 National Bank of Abu Dhabi(NBAD)는 중동계 은행 가운데 최초로 엔화표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였음.

- 발행금액은 100억 엔 규모로 발행조건은 15년 만기에 표면금리는 연 2.6%이며, 주관사는 Mistubishi UFJ, Morgan Stanley Securities, HSBC Securities Japan임.
- 최근 수년간 차입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투자가를 대상으로 홍콩 달러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왔고*, 향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달러화 표시 채권도 발행할 계획임.

* 2010년에는 처음으로 이슬람 채권(sukuk)을 말레이시아에서 발행한바 있음.

○ UAE내 자산규모 3위의 First Gulf Bank(FGB)는 35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 채권 발행 계획을 런던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였음.

- 주관사는 Citi, Standard Chartered, HSBC이며, 최근 투자분위기가 호전되면서 GCC* 지역 이슬람 채권의 평균수익률이 하락함에 힘입어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음.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며, 세계 원유 매장량의 36%,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FGB는 2011년 1월에 5년 만기 스위스 프랑화 표시 채권을 표면금리 연 3%에 발행한 바 있음.

<표 1> UAE 3대 은행의 주요 경영 통계 (2010)

단위: 억 달러

은행	총자산	총자본	당기순이익	순위
Eirates NBD	782	92	6.4	1위
NBAD	578	66	10	2위
FGB	385	67	9.7	3위

<두바이 사무소 제공>

책임조사역 박 대 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